

# 12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큰 폭 하락 [WTI: \$36.18 (-9.59%)]	국제 유가는 전날 8%에 이어 10% 추가 급락, 배럴당 37달러선 아래로 내려섰음. 뉴욕상업거래소(MYN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3.84달러(9.6%) 하락한 36.22달러로 마감했음. 장중에는 35.98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2004년 6월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로써 유가는 올해 들어서만 59%, 지난 7월11일 기록한 최고가인 147.27달러에 비해서는 75% 추락했음.
뉴욕증시, 오후장에 무너져..GE·GM 급락 [다우: 8,604.99pt (-2.49%)]	국제유가 폭락세가 경기부진 우려감을 자극한데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도 악재로 작용하여 뉴욕증시가 오후 들어 갑작스레 낙폭을 확대하며 급락세로 마감했음. 자동차업계에 대한 `합의파산` 가능성이 불거지며 GM이 급락세를 보였고,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내년도 반도체 장비 전망을 대폭 축소할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음.
경기지표 예상 보다는 선방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주(13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55만4,000건에 달했지만, 전주보다는 2만건 이상이 줄었고 월가의 전망치 (5만8,000건)도 소폭 하회했음. 내년초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도 0.4% 하락해 새해 들어서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줬음. 하지만 이 역시 월가의 전망치(-0.4~0.5%)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음.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32.9로 형편없었지만, 마이너스 40 안팎을 예상했던 월가의 전망치보다는 그래도 양호했음.
내년 반도체 경기 우울..	시장 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이날 내년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하는 여파로 반도체 장비 수요가 31.7%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는 종전 전망치였던 12.8% 감소보다 훨씬 커진 규모임. 가트너의 클라우드 린넨 부사장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업계가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찾아왔다"며 이같은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트너는 특히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도 연간기준으로 사상 첫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음.
英 파운드화, 유로 대비 사상 최저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18일 유로 대비 사상 최저로 떨어짐. 파운드는 외환시장에서 1.059유로까지 떨어져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1대1로 거래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

제목	주요 내용
中 "개혁개방 지속" 경제성장 추진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은 중국 지도부는 18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 후 주석은 기념사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함.
유럽 증시 혼조세..英 상승, 佛.獨 하락	유럽 증시는 18일 미국의 경기부양책 승인 전망과 유럽 각국의 수치화된 경기침체 우려가 교차하면서 혼조세로 마감.
日 내년 자동차 판매 31년래 최악 전망	일본의 내년 자동차 판매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31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일본 자동차공업협회(JAMA)가 지난 18일 전망. JAMA는 내년 승용차와 트럭, 버스 판매가 올해에 비해 4.9% 감소한 486만대를 기록할 것.
포스코 사상 첫 감산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가전 등 철강수요 산업의 감소와 수요 급감에 따라 사상 첫 감산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현 상황은 IMF때 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됨. 포스코의 감산은 그동안 국내 철강재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재고조정 시기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것로 보임.
LG전자 5개 사업본부로 확대 개편	LG전자가 기존 B2C중심에서 B2B와 솔루션 분야를 대폭 강화. 이와 함께 기존 4개 사업본부를 5개 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48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단행.
강만수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